



주식시황 Analyst 하인환 02. 6454-4893 / inhwan.ha@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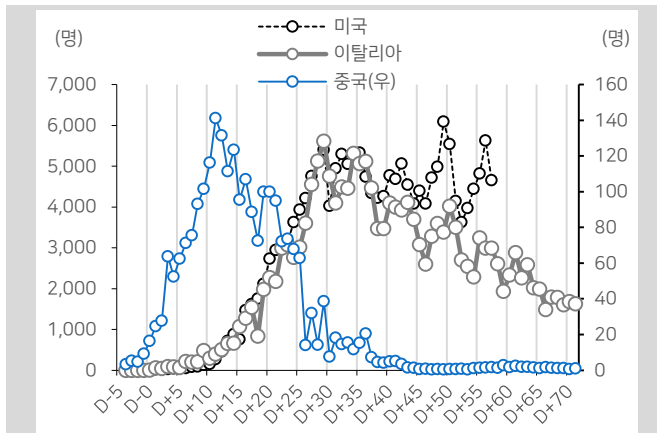
**COVID-19, 경로가 달라지고 있는 몇몇 국가들**

아래 그림들은 이미 시세판과 전략공감 자료들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 그래프다. 국가별 COVID-19 확진자 수를 '한국 인구수'에 맞춰 조정한 숫자다. 즉, 미국 인구수가 3억명이고 한국 인구수가 5천만명이라면, 미국의 COVID-19 확진자 수를 1/6 한 숫자다. 굳이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조정한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인 시점을 D+1일로 설정했다.

이렇게 새로 조정한 숫자로 비교할 경우 강조하고 싶은 특징은 2가지다. 첫째, 중국과는 달리 유럽(이탈리아)과 미국은 신규확진자 정점이 늦게 나타났고, 안정되는 속도도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둘째, 이탈리아와 미국의 신규확진자 증가세는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이 2가지 있다. 첫째, 미국이 이탈리아의 경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이탈리아보다 안정되는 속도가 매우 더디다. 미국의 COVID-19 증가세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둘째, 러시아(+인도 등)의 경우 신규확진자 정점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와 비교해서도 최소 3주는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유럽(+미국)에 이어 신규 확진자 정점 확인까지의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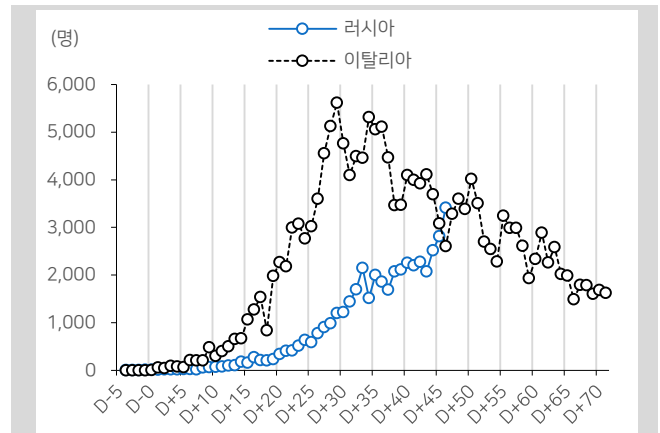
COVID-19 : 이탈리아 경로와 달라지고 있는 '미국'



**이탈리아의 경로를 벗어나고 있는 미국**

- D+35일까지는 미국이 이탈리아의 경로를 매우 유사하게 따라왔음
- 그런데 D+35일부터 현재까지 조금씩 경로를 벗어나고 있음
  - 이탈리아는 느리지만 안정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아직까지 안정화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COVID-19 : 이탈리아 경로와 다른 '러시아'



**신규확진자 정점 확인까지의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

- COVID-19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한 것은 유럽에서 확산됐기 때문
  - 중국과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 정점이 빠르게 확인되고, 이후 빠르게 안정화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나왔기 때문
  - 그런데 유럽, 미국보다도 신규 확진자 정점 확인이 더 늦어지고 있는 국가들 나타나고 있음. 러시아, 인도 등

주)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본문의 첫 문단에 있음  
 자료 : Worldome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메리츠 시황의 판단**

1. 중국, 한국, 그리고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COVID-19는 안정화되고 있는 중. 하지만 몇몇 국가들에서는 안정화되는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
2. 미국은 이탈리아 경로를 매우 유사하게 따라갔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이탈리아 경로 벗어나는 중. 안정화되는 속도 매우 느린 상황
3. COVID-19 확산 중인 러시아, 인도 등은 이탈리아 Case보다 신규 확진자 정점 확인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
4. 미국, 러시아 등은 유럽과는 달리 COVID-19 안정화가 매우 더딘 상황. COVID-19 확산세에 대해 아직은 경계감 유지할 필요 있다고 판단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